

## 스티로폴의 화려한 변신



김경배

푸른부천21 코디네이터2기

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용 업체 견학을 간다가  
에 우리 동아리 회원들과 신청하여 참여 하게 되었다.  
3월 마지막 날을 보람되게 보내려나 부지런히 시청 앞  
으로 향했다. 우리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스티로폴을 회  
수, 재활용되어 재생제품화 되면 어떤 제품이 될까?

내가 생활용품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겠  
지?... 라고 생각했다. 버스는 파주로 향하고 가는 도중  
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장 재선차장님이 친절한 설  
명과 스티로폴 재활용 관련 TV방송 자료를 시청했다.

어느새 도착. 금성 산업을 둘러보았다. 매캐한 냄새가 우  
릴 반겼다. 양쪽으로 한쪽엔 회색동산, 다른 한쪽엔 흰색  
동산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. 수거한 스티로폴을 잘게  
부셔서 덩어리로 만든다. 스티로폴의 부피가 50분의1로  
준다고 한다.

더러운 것은 회색빛(kg당400원)으로 깨끗한 스티로폴은  
흰색(kg당700원)으로 아~ 들어오면서 양쪽으로 쌓아둔  
조그마한 동산(잉고트)의 정체를 알았다. 그것을 다시 열  
을 가해 국수 가락을 만들어 식혀서 쌀알(펠릿) 정도 크  
기로 잘라 다시포장을 하는 공정까지인 업체이다. 점심  
식사 후 신일 프레임을 방문했다.

먼저 방문한 곳의 쌀알(펠릿)을 열을 가해 로울러를 지나  
면 우리 집 천청이나 액자를 만들어 내는 몰딩이 다양한  
색상과 슷을 함유한 친환경 제품으로 변신을 한다. 재활  
용제품이라 가격이 저렴한 줄로만 알았는데 원목 다음으  
로 비싸게 판매, 수출 된다고 한다. 불량품은 다시 또 재  
활용 한다니 이곳은 버릴게 없다. 몰딩으로 꾸민 전시실  
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웠다. 끊임없는 아이디어로 버려지  
는 스티로폴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변신 하다니 존경  
스러웠다. 환경을 생각한답시고 병, 캔, 비닐은 신경 써  
도 스티로폴은 모아 버리기가 잘 되지 않았다.

더러운 것은 400원, 깨끗한 것은 700원, 앞으로 버리는  
것을 잘 버려야 되겠다.

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가 훌륭한 수출품이 되도록 노력  
하시는 분들을 봐서라도 가정에서 바르게 버려서 쓰이도  
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.

함께하며 도움을 주신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와 의  
제에 감사드립니다. 좋은 견학을 마치고 창밖을 보니 소  
나기가 그쳐가고 있다. ☀

